

부산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

이 일 갑*

| 목 차 |

- I. 머리말
- II. 다대포진과 진성 축조
- III. 다대포진성의 고고학적 검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다대포진성은 문헌상 대왜구방어 최일선기지로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국방상 중요거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다대포진성은 평면 주형의 석성으로 된 영진보성이며 성중 21년에 높이 13척(尺), 둘레 1천 8백 6척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1850년에 발간된 내영지에 높이 13척, 둘레 1,806척이라 하고 있어 임진왜란 이후 원래 진성규모로 복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대포진의 입지유형은 적이 아군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점이 있지만, 아군 역시 좁은 해협과 만곡된 지형으로 인해 적의 출입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응봉봉수를 권설봉수(權設烽燧)로 활용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채성은 성석의 크기를 줄이고 기단석의 입수적보다 넓혀쌓기를 실시하는 조선

* (재)시공문화재연구원 / r117man@hanmail.net

후기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기반암층을 거칠게 정지하여 경사면에 수평기단을 활용하여 축조하는 점, 지대석을 사용하고 있는 점, 체성 외벽 뒤쪽에 침석을 설치하고 그 뒤에 적심석을 채우고 흙을 내탁하는 등의 조선 전기 읍성 및 영진 보성에서 나타나는 축조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 후기에도 전기의 축조수법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대시설은 성문이 4개소(동, 서, 남, 북), 간문이 1개소와 북벽 해자 1개소가 확인되었다. 해자는 선조 26년(1591)에 다대포진성을 증축하고 해자를 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자는 동, 서, 남, 북벽 사방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는 수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벽 체성부에서 10m정도 이격하여 너비 5.2m의 생토면을 굴착한 후 3.3m~3.7m 간격을 두고 내외에 호안석축이 설치되어 있다. 호안석축은 지대가 낮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서쪽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자 단면은 U자형으로 물을 채우지 않은 건조인 황에 해당하며 호안석축은 기저부의 바닥에 지대석을 놓고 뒤로 물러서 축조하는 것과 지대석이 없이 기반암 위에 바로 축조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내부에서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연해읍성에 비해 방어적인 면에서 부실함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다대포진, 다대진성, 영진보성, 체성부, 해자.

I. 머리말

부산지역은 반도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해양세력에 의한 대륙 진출 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을 방어하는 주요거점의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이다. 더욱이 삼국시대 가야, 신라의 각축장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좋은 항구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조선시대 전 기간은 물론 앞선 삼국, 고려시대 이전부터 인식되어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소재하는 다대포진성은 성종 15년 남해 안지역 영진보성이 본격적으로 축성되는 이전 시기부터 축성논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경상좌수영 이전이 고려되었을 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특히 다대진성은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후기 폐성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 중요 국방요새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그 구조와 축조수법 파악은 성곽사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영진보성 연구는 대체로 문헌사에서는 축성기사 검토에 치중하여 일부 소개되고 있고, 고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해읍성의 한 범주에 포함하여 생각되기도 한다.¹⁾

최근까지 영진보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대부분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 이를 통해 영진보성은 군사적인 성곽일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단위의 치소성으로 존재하였으므로, 조선시대의 군사편

1)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2) 丁仲煥·沈奉謹, 『창원군내 성지조사보고』, 『석당논총』 1, 1976. 최몽룡, 『고흥발포진성 발굴조사보고서』, 『백산학보』 29, 1984. 동아대학교박물관, 『蔚山倭城·兵營城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무안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장흥군의 문화유적』, 1989.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경상좌수영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0. 동아대학교박물관,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査報告書』, 1991. 목포대학교박물관, 『강진 병영성 발굴조사보고서』, 1991.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烏壤城地』, 1994.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市 城址 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1995. 목포대학교박물관, 『완도군의 문화유적』, 1995. 국립부여박물관, 『서천 장암진성』, 1997. 나동욱·성현주, 『금단곶보성지 발굴조사 개요』, 『박물관 연구논집』 6, 1997.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長木觀光關地造成地域 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 1997.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통영시, 『당포성 지표조사보고서』, 1997. 동아대학교박물관, 『舊所乙非浦城址地表面調査報告書』, 199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경상좌수영성지』, 2001. 경남발전연구원, 『거제읍포진성』, 2005. 경남발전연구원, 『마산합포성지』, 200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1』(전라우수영), 2011. 경남발전연구원, 『통영읍성』, 20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2』(전라좌수영),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3』(경상우수영), 2016.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울산 병영성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2016.

제 및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차용걸은 도성과 산성이 아닌 관방성 특히 남해안지방의 진보가 축조되는 조선전기, 축성사상 전대와 다른 특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³⁾ 민덕식은, 진보의 축성시 초기의 목책도니성의 형태에서 석축으로의 전환과정과 수중목책(연목)에 관해 진보의 축성시 부대시설로의 설치를 사료의 기록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⁴⁾ 유재춘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성곽기록 표기법은 대체로 포백적이 기준이라 하였다. 특히 성종 16년 홍응의 제포의 보에 대한 심정시 회령포와 영등포의 보의 길이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함을 들어 그 용적이 포백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성곽 표시 단위가 ‘보’ 중심에서 ‘척’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⁵⁾ 심봉근은 기존의 문헌사료의 해석과 대입에 의한 성곽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이때 연구의 보완방법으로 남해연안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 조사된 성지의 체성 축조수법과 구조, 규모, 축성재료등 제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곽의 시기별 특징을 밝히고 전국에 분포한 각종성지의 축조시기와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⁶⁾ 이일갑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검토하여 영진보성은 읍성과는 다른 군사시설임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입지, 평면형태, 성둘레, 체성부의 축조수법, 인접 왜성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형식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진보성의 설치와 운영은 조선전기 남해안지역의 해안방어체제의 완비를 위한 성종19년을 전후한 입보수성의 소극적인 방어전술의 전환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대해상방어전략임을 규명하였다.⁷⁾ 또한 이일갑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

3)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4) 민덕식, 『조선시대의 목책』, 『충북사학』 11-12, 1988, 169~232쪽.

5)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33, 1996.

6) 심봉근, 『한국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법과 부대시설 가운데 치성 등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영진보성의 제 단위의 위상에 따라 성둘레와 부대시설의 규모와 설치 수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⁸⁾

최근까지 다대진성에 대한 조사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부산대학교박물관, 1977)⁹⁾, (나동욱, 1993)¹⁰⁾, (이일갑, 2000)¹¹⁾, (부산시립박물관, 2001)¹²⁾, (한국문화연구원, 2006. 4)¹³⁾, (김석희, 1992)¹⁴⁾, (국보학술문화연구원, 2016. 7)¹⁵⁾에 의해 미시사적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에 한정된 지표조사 및 긴급구제조사였다. 그리고 거시사적 연구에 있어서는 (송해영·서치상, 2015. 10)¹⁶⁾의 연구에서 다대포진의 관아구성과 각 건물지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다대포진성의 해체과정이 확인되어 일부 연구의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다대포진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다대포진성 북벽 체성부 바깥에서 다대포진성 해자의 석축이 조사되어 조선시대 영진보성 구조와 축조수법이 확인되어 다대포진성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체성부와 해자를 중심으로 다대포진성에 대한 구조와 축조수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대두되었다.

7) 이일갑,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 이일갑, 『경남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보』 45, 2008.

9) 부산대학교 박물관, 『부산시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1977.

10) 나동욱,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 『박물관 연구논집』 2, 1993.

11) 이일갑, 앞의 논문, 2000.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다대포성지 내 건물 신축에 따른 정밀지표조사』, 2001.

13) 한국문화연구원,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06.

14)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9, 1992.

15) 국보학술문화연구원, 『부산 다대진성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2016.

16) 송해영·서치상, 『다대포진 관아의 공간구성과 해체과정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1-10, 2015.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근 조사된 고고학적 현황을 바탕으로 다대포진의 설치와 축성, 진성의 규모와 축조수법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관방체계의 한 단면과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축성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Ⅱ. 다대포진과 진성 축조

1. 다대포진

다대포진성이 위치하는 부산 서남단에 위치한 사하구는 장군봉, 천마산, 아미산, 시약산을 경계로 동쪽으로 서구와 접한다. 낙동강을 경계로 서쪽에 강서구, 구덕산 서쪽 능선과 승학산 줄기를 경계로 북쪽에 사상구, 그리고 남쪽으로 남해와 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대포는 북쪽으로 장림동, 감천동과 접해 있고, 그 나머지는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대포는 지리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진 포구이며 예로부터 다대진으로 불리웠다.¹⁷⁾

현재 다대포 지명은 다대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동래현 소속 다대포가 해방 요처로 부각되어 부산포에 주둔했던 경상좌도 도만호가 진장을 겸했다. 이후 다대포진 천호가 임명되었고 부산포 소속의 병선 3척이 배속되었다. 그러나 이때 다대포진은 병선을 정박할 장소나 관련 관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다대포진 천호는 부산포에 머물렀다. 1417년(태종 17) 수군만호(종4품)가 파견되는 수군진이 되었으며 병선 9척과 723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¹⁸⁾ 이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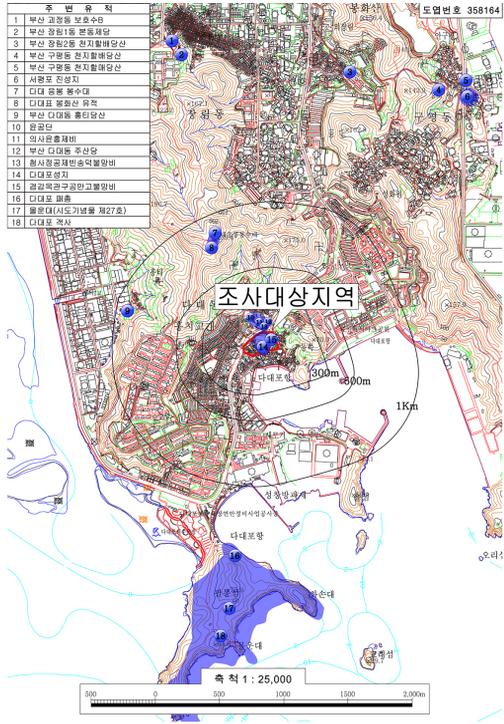
17) 한국문화연구원,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06.

18)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8월 20일 계묘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재 위치로 다대포진이 이설되었다가 장승포로 다대포진이 다시 이설되었다. 이후 부산포진에 합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511년(중종 6년) 2월 22일 계묘 기사¹⁹⁾를 살펴보면 다대포진은 장승포에 이설 후 여전히 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1511년(중종 6년) 4월 13일 임진²⁰⁾ 기사를 볼 때 장승포와 서평포가 동일한 지역이라고 생각

된다. 그렇지만 장승포 이전이 대간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대포진은 옛 자리로 복설되었다.²¹⁾ 이후 다대포진에 부산포진을 옮기고 부산포를 경상좌도의 수영으로 삼고자하는 논의가 있었다.

다대포진의 진장에 당상관을 그곳의 첨사로 삼도록 계청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고 있어 이때에 이르러 다대포진은 만호진에서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²²⁾



<그림 1> 다대포진성 및 주변유적위치도(1/25,000)

지리지 / 경상도

- 19)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2일 계묘.
- 20)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 21)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2월 27일 갑진.

또한 1534년(중종 29년) 9월 29일 임진 기사에는 다대포진 내 관사 규모와 객관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종 39년(1544) 가을에 이르러 가덕도 축성사의 복명에 따라 다대포진 진장을 무재가 있는 당상관으로 가려 차출하여 군관을 많이 거느리게 하고 도내의 한량도 아울러 호세를 갈음하여 부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²³⁾

아울러 1544(중종 39년) 9월 28일 갑자에 다대포진에 군관 3인과 병사 100명을 충원토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다대포를 첨사진으로 한 것은 적이 들어오는 길의 첫 지역에 기인하는 곳이라 현재의 첨사와 과거 만호의 예를 들어 새로 차출하는 첨사는 동반을 오래 지낸 물망이 있는 자로 하도록 논의되고 있다.²⁴⁾

한편, 1592년(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개전 초에 다대포진성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대에게 함락되고 첨사 윤흥신 이하 군관민이 역전하였으나 피살되었다.²⁵⁾ 당시의 상황을 서예 유성룡이 쓴『징비록(懲毖錄)』에 다대포첨사 윤흥신(尹興信)은 적을 막아 힘써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전투 날짜나 전투상황은 밝히지 않았다.²⁶⁾ 1757년(영조33년) 당시 동래부사를 역임한 부제학 조엄(趙巖)이 쓴 다대포 첨사『윤공전망사적서(尹公戰亡事蹟敘)』에 의하면, 당시 첨사 윤흥신의 행적은 파악할 수 있으나 기타 전투와 관련한 날짜와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다.²⁷⁾ 그리고 다대포는 임진,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미수복지역이었고 부산포를 중심으로 축조되는 왜성 축조공역이 다대포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⁸⁾

22) 『중종실록』 권78, 중종 29년 9월 29일 임진.

23) 『중종실록』 권104, 중종 39년 9월 26일 임술.

24) 『중종실록』 권104, 중종 39년 9월 28일 갑자.

25)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26) 『懲毖錄』 권1.

27) 『영조실록』 권118, 영조 48년 1월 14일 경술.

임란이후 다대포진은 적로의 제일선임을 인식하여 여타의 진들과 달리 이설되거나 폐지되지 않았고 바로 복구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1750년(영조 26년) 에 유명무실한 진보 철폐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대포진에 소속된 전선을 줄이는 논의도 포함되었다.²⁹⁾ 1881년(고종 18년) 2월 26일 무오에 포이, 개운, 서평의 진을 없애고 절영도진을 설치하였다. 해당 진장은 침사로 승격시키고, 관아 건물, 창고, 무기, 군항(軍餉), 급료를 앞서 폐지한 3개진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였다. 설치된 목장은 적당한 곳에 옮기도록 하였다. 이때에 서평포진이 폐지되었고 관련 시설물 및 군기 등이 다대포가 아닌 절영도진으로 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1883년(고종 20년) 4월 19일에는 앞서 서평진의 폐지에 이어서 다대진을 폐지하였다. 이때 다대진은 해당 침사 이력만을 허용하는 대신 그 휘하에 소속된 모든 곳은 부산진에 이부토록 하였다.³¹⁾ 그러나 1885년(고종 22년) 12월 19일 계미에 절영도가 도서의 한계로 인한 방어 상의 문제와 폐지한 영진의 성지와 청사도 본래 완전하고 견고하며 무기와 군사들도 아주 정예하여 능히 위급한 때에 의거할 수 있음을 들어서 다대진을 재설치하였다. 아울러 절영도 침사의 직함을 감하고 해당 진영의 장수를 다대진 침사로 삼도록 하고 있다.³²⁾ 이렇게 재 설치된 다대포진은 1910년 일제가 전국의 성곽철폐령이 내려지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부산지역의 가장 중요한 해안방어처로 운용되었다.

28) 『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18일 계묘.

29)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11월 23일 임술. 이때 당시 논의의 내용은 전선 1척을 줄이며 적제는 800명에서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오히려 전선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수영의 이전을 다대포진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다대포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30) 『고종실록』 권18, 고종 18년 2월 26일 무오.

31) 『고종실록』 권20, 고종 20년 4월 19일 기사.

32)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12월 19일 계미.

2. 다대포진성의 축조

다대포진성에 대한 축성논의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483년(성종14년) 울산지역 수영을 다대포로 이설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부산포와 제포의 예와 같이 축성³³⁾ 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다대포진에 아직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다. 이후 1484년(성종15년)에 남해안지역의 영진보성의 축조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홍응을 축성사로 삼아서 해당지역의 영진보성에 대한 성기를 심정케하였다. 이때 1485년(성종16년) 홍응의 계문에 의하면 다대포진성은 초축 당시에는 수군만호의 제진이라 체성의 둘레 1,298척, 동서 360척, 남북 244척 이었다.³⁴⁾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 동래부조에는 1490년(성종 21년) 다대포영은 석성으로 축조되고 둘레 1,806척, 높이 13척이다. 동서남북에 성문과 문루가 있어 동문은 패인루, 서문은 영상루, 남문은 장관루, 북문은 숙위루라 하였다. 성내에는 객사인 회원관과 동헌인 수호각을 비롯하여 군기소인 청상루, 관청, 금산소, 목소, 공방소, 도훈도소, 지통소, 제향소, 대동고, 유포고, 대변소, 진창 등이 관사와 창고가 있었다. 이밖에 성 밖에 주사의 관문인 진남루와 주사의 대변소인 진남정이 있었다.³⁵⁾

이외에 『東萊府誌』, 『萬機要覽』, 『東萊府邑誌』, 『萊營誌』, 『東萊府邑誌』 등에서는 다대포진성의 성둘레를 1,806척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1893년 발간된 『多大鎭各房重記冊』에서는 1,908尺에 193堞로 기록되어 있다. 1895년 발간된 『多大鎭誌』에서는 10척이 늘어난 1,918尺으로 기록되어 있다. 타구의 숫자는 193堞로 동일하다. 그러나 1895년 발간된 『東萊府事例』에서는 다시 1,806尺으로 기록되어 있다.

33) 『성종실록』 권154, 성종 14년 5월 8일 기해.

34)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25일 병오.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부조.

따라서 처음 다대포진성 성기를 심정한 것에 비해서 600척 이상을 늘려 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영진보성 성기심정에 사용된 척도는 현재 미터법을 환산해보면 포백척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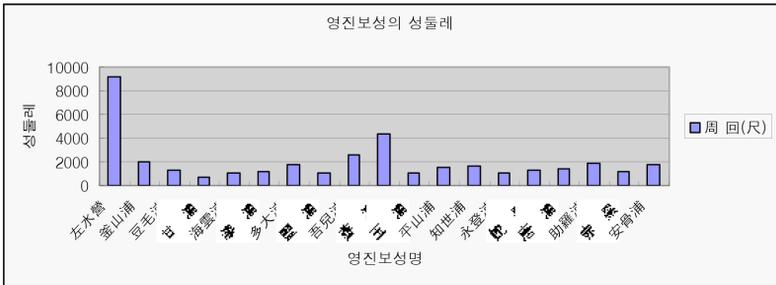
이러한 다대포진성 성둘레는 경상좌수영성과 경상우수영성, 제포진성, 부산포진성, 울산병영성, 합포성 등 침절제사와 절도사영이 설치된 영진보성의 성둘레가 2000尺 이상을 상회하는 반면 2000척 이하임을 알 수 있다.

<표 1> 남해안 영진보성 성둘레

| 영진보성명 | 500~1000尺 | 1001~1500尺 | 1501~2000尺 | 2000尺이상 |
|-------|-----------|------------|------------|-----------|
| 좌수영성 | | | | ●(9190) |
| 부산포 | | | | ●(2026) |
| 두모포 | | ● | | |
| 감포 | ● | | | |
| 해운포 | | ● | | |
| 칠포 | | ● | | |
| 다대포 | | | ● | |
| 염포 | | ● | | |
| 삼천포 | | ● | | |
| 남해성고개 | ● | | | |
| 회령포 | | | ● | |
| 제포 | | | | ●(4316.3) |
| 옥포 | | ● | | |
| 당포 | | ● | | |
| 조나포 | | | ● | |
| 가배량 | | | | ●(2620) |
| 평산포 | | | ● | |
| 적량포 | | ● | | |
| 지세포 | | | ● | |

| | | | | |
|-------|---|---|---|---------|
| 사랑포 | | ● | | |
| 안골포 | | | ● | |
| 영등포 | | ● | | |
| 구울포 | ● | | | |
| 합포성 | | | | ●(4291) |
| 장암진 | | ● | | |
| 금단곶보 | | | | ●(2568) |
| 소을비포 | ● | | | |
| 울산병영성 | | | | ●(3732) |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 영진보성 가운데 1000~1500척을 전후로 11개소, 1500~2000척이 6개소로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고 있고, 보의 경우에는 대략 1000척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⁶⁾



<그림 2> 영진보성의 성둘레(이일갑, 2010년, 영남고고학보 전체)

그러나 다대포진성은 침사영성으로 승급되었음에도 초기 축조 당시 만호영의 성둘레 1,806척을 장습포 및 서평포로의 이설과 합병, 다시 초축 성지로 이전, 이후 임진왜란을 거친 조선 후기까지도 증축은 이루어

36) 이일갑, 앞의 논문, 2008.

지지 않았다. 따라서 첩절제사 및 절도사영성의 최소 성둘레인 2000척 이상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변진이력지구로 지정되어 당상관급 무관이 진장인 영진보성인 중요성에 비하여 성둘레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다.(그림 2참조)

다대포진성은 1510년(중종 5년) 4월9일에 왜구에 의해 침탈되어 성내외부와 군선이 불탔다.³⁷⁾ 동년 5월 24일 무인일에 이와 관련하여 도원수 유순정은, 다대포의 병선이 불태워져 남은 것이 없고, 병선이 불타는 것을 방지하고 위해 수중목책을 설치토록 건의한다. 이때 이후에 설치한 수중목책이 제포진성, 당포진성 등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다대포진성에도 이때에 수중목책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⁸⁾

다대포진성 성곽 수개축과 관련하여서는 1593년(선조 26년) 윤11월 14일에, 선조와 유성룡의 대담 내용에 임진왜란 발발 전 인 1591년(선조 24년) 신묘년에 전국에 걸쳐 성지를 선축하는데 다대포진성 역시 체성부 및 해자의 수개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³⁹⁾ 이때에 이르러서 초축 이후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대규모의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란이후 다대포진성의 수개축과 관련하여서는 1708년(숙종 33년) 12월 지중추 이인엽 서계에 나온 내용 가운데 변방의 가장 요해처에 다대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시 더 증수하도록 하

37)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10일 을미.

38)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5월 24일 무인, “都元帥柳攄汀狀啓曰: ... 且前者賊倭等焚蕩薺浦永登浦安骨浦釜山浦多大浦兵船無餘 賊若復寇 則必如前焚蕩 須植大木以鐵鎖次次聯接 橫截藏船浦口.”

39)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 윤11월 14일 갑오, “謹查小邦 前於辛卯夏 日本賊酋 遣妖僧玄蘇 來叩邊門投書 其言絕悖(脅) 小邦以從已小邦君臣 爲之痛心 疾首 知必有賊變 卽差使臣 馳奏京師 又分差巡察使金晬 于慶尙道 李洸于全羅道 尹先覺于忠清道 巡邊使 申砬 李鎰于京畿 黃海道 點閱軍丁 修造軍器 繕築城池 又以慶尙道前受敵之地 增築釜山東萊密陽金海多大浦昌原咸安 等城 鑿深壕塹 其內地之無城處 如大丘府 淸道郡 星州牧 三嘉縣 永川郡 慶山縣 河陽縣 安東府 尙州牧 悉發民築城 又慮人情擅安怠慢 國王連發近臣 承旨等官 閱視催督 其違慢失機者 以輕重行罰.”

는 내용이 확인된다.⁴⁰⁾ 또한 1868년(고종 5년) 8월 22일에 다대포진성의 성첩과 군기를 수리한 공을 들어서 다대 첨사 김기혁에게 포상하는 은전을 배풀도록 하고 있어 이때에 이르러 다대포진성을 수개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따라서 다대포진성은 초축 이후 4차례 이상 전면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나 성둘레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현재 미터치로 환산한 다대포진성 규모가 잔존 체성부 둘레 약 835m이고, 성종21년에 축조한 둘레 1806척의 포백척 환산치인 843m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때 기록 가운데 척수 차이는 척도의 사용을 달리한 것이거나 10척 차이가 나는 것은 오기로 파악된다.

다대포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선이 다대포항에 주둔하고 있었으며⁴²⁾ 가등청정이 정유재란 재침시 다대포로 상륙하였다.⁴³⁾ 또한 왜군이 다대포 등지에 왜성을 축성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왜군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군사적 요충으로 다대포진성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⁴⁴⁾

40)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12월 27일 을사, “乙巳/知中樞李寅燁上疏條陳鳥竹兩嶺防守事 仍言一 卽今憂 虞 多在海防疎虞之端 非止一二 沿海列鎮 雖星羅碁布 而凋殘疲弊 士卒鮮少 脫有緩急 無以得力 臣之淺 慮以爲 擇其最要害處 如嶺南之巨濟 南海 加德 多大浦 湖南之加里浦 蝟島 古羣山 湖西之元山 安興 海西之白翎 所江 關西之廣梁 宣沙 更加增修 島中人民 盡爲劃給 團束作隊 時時鍊藝.”

41) 『고종실록』 권5, 고종 5년 8월 22일 병인.

42)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43)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壬子/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議政府右議政李元翼 身兼將相 時擬鄧 書狀機張縣監李廷堅馳報內 清正今月十三日**多大浦到泊** 先來船二百餘隻 十五日廷堅又馳報曰 倭大船一隻 倭子七十餘名及倭將喜八 卽金大夫 直到釜山 以牌文示之曰.”

44) 『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18일 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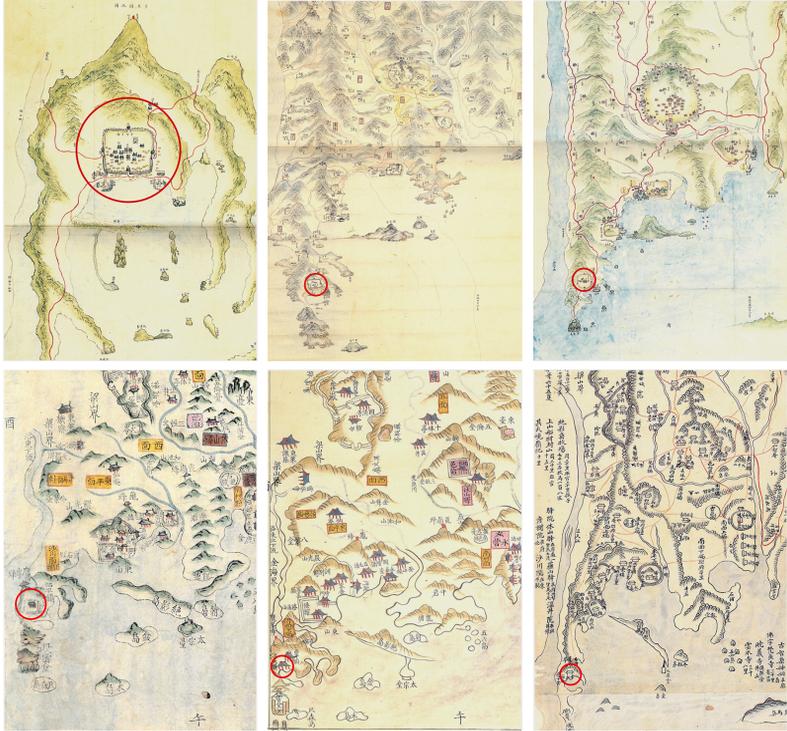
Ⅲ. 다대포진성의 고고학적 검토

1. 다대포진성 구조 검토

『조선후기지방지도』에는 다대포진 전체를 성곽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체성부 상단에 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광여도』에는 체성부가 없고 객사 건물만 축조된 것으로 표시되고 인접해서 서평진이 위치하고 있다. 『해동지도』에도 체성부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다대진지도』, 『동래부산고지도』, 『조선후기지방지도-경상도』, 『각읍지도』 등에서 확인되는 체성부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내지 타원형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원도 및 현황측량도, 지형도에서 확인된 다대포진성 평면형태는 주형으로 확인되어 고지도에 표시된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고지도 가운데 성문은 『영남도』, 『영남지도』(규장각), 『영남지도』(영남대학교), 『각읍지도』, 『영남읍지』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반면에 1872년 『군현지도』(다대진지도), 『동래부산고지도』, 조선후기지방지도에서는 4대문이 표시되고 홍예식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다대포진성 성문의 정확한 형태 파악은 어렵다. 다만 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영진보성 성문 가운데 개거식 형태가 많이 확인되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또 다대포진성 북동쪽에 서평진이 주로 표시되어 있다. 체성부를 묘사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관사만 표시하고 있다. 선창은 조선후기 지방지도에서는 다대포진성의 동쪽 해안에 설치되어 있으나 1872년 『군현지도』에는 남벽을 기준으로 할 때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동래부산고지도(19세기 후반)에서는 선창은 그려져 있지 않고 단지 선박이 남벽 체성부 기준으로 해안 좌우에 묘사되어 있다.



<그림 3> 대대포진성의 고지도(좌상에서 ①대대진지도, ②동래부산고지도, ③조선후기지방지도-경상도-, ④각읍지도 동래부, ⑤광여도, ⑥해동지도)

고지도에서는 부대시설인 옹성과 치성, 해자의 설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고지도상에 실제와 달리 옹성 및 치성 등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더구나 최근 북벽 체성부 외부에서 해자가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체성부를 제외한 부대시설의 지도 묘사는 의도적으로 생략된 듯하다. 이처럼 부대시설을 지도에서 생략하는 것은 역시 군사적인 이유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부대시설 가운데 옹성의 위치와 개구부의 방향, 그리고 치성의 위치와 숫자는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것에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1

차 방어선인 해자의 설치 유무와 진출입로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2. 다대포진성 조사현황 및 검토

1) 고고학적 조사현황

다대포진성은 평면 주형의 잔존 성둘레 약 835m 석축으로 된 영진보성이다. 다대포진성이 위치한 곳은 북쪽에 있는 아미산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편이다. 남쪽은 바다와 매립지로 형성된 다대포항이 연결하고 있으며 북쪽은 다대로 개설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현재 다대포진성 체성부는 대부분 민가 담장으로 사용되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북쪽은 도로개설 및 최근 지하철 공사 터파기로 인하여 체성부가 훼손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가장 잔존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다. 다만 부산유아교육진흥원 담장으로 사용 중인 다대포진성 북벽 체성부 일부(약 15m), 다대동 174,175-1번지 일부(약 30m), 180-1, 180-4, 181-1, 182번지(약 50m), 남벽 182, 183-3, 190-1, 191번지 100m, 1121, 1122, 1123, 1129번지 일원(80m)과 서벽 1109-4, 1111번지에 체성부 일부(약 20m)가 잔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략 300m 내외의 체성부가 잔존하고 있다.

북벽은 고고학적 조사 결과 기단부 및 체성부가 확인되었다. 외벽기단보축 범위도 파악되었다. 체성부 외벽 잔존 높이는 1.5 m로 약 3~4단이 확인되었다. 외벽은 풍화암반 위에 갈색사질점토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황갈색토 및 흑갈색토를 교대로 쌓아 다졌다. 그 위에 편평한 지대석을 놓고, 다시 그 상부로 치석된 대형 석재들을 약 10cm 정도 뒤로 물려서 성벽석을 축조하였다. 외벽 성석 사이에는 잔돌을 끼워 넣었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비교적 작은 할석들을 사용하여 외벽을 축조하고 있으며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혼용하였다. 체성부 외벽 지대석 앞쪽으로

판상형 석재를 이용하여 약 110~120cm 폭의 외벽기단보축을 설치하였다.

다음으로 다대포진성 부대시설을 살펴보면, 성문 4개소(동, 서, 남, 북), 간문 1개소와 북벽에서 해자가 확인되었다. 서문과 동문, 북문은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지적원도를 참고할 때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다대포진성 해자는 북벽 체성부에서 10m 이격된 지점에서 폭 5.2m 정도이다. 생토면을 굴착한 후 3.3~3.7m 정도의 폭을 둔 해자 내외호안석축으로 확인되었다. 이 호안석축은 지대가 낮은 동쪽에서 높은 쪽인 서쪽으로 축조된 것이다. 해자는 지표아래 약 40cm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자의 북쪽 호안석축은 지대석을 포함하여 2단이 잔존하고 있으며 잔존 길이는 약 8m, 잔존 높이 50cm 이다. 북쪽 호안석축 1단은 기반암인 풍화암반을 “L”상으로 절개하여 판상형 석재 및 할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을 축조하고 있다. 일부지점은 기반암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때 굴광선과 해자호안석축 사이에는 점성이 강한 암갈색점질토와 풍화암반 알갱이편이 포함된 다짐층이 확인된다. 호안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지대석은 20~25×30cm, 기단석은 25~30×20cm의 할석을 사용하였다. 남쪽 호안석축은 지대석과 기단석의 2단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 길이는 6.4m이며 호안석축의 일부는 지대석 없이 기반암에 그대로 축조한 반면 일부는 지대석을 축조하여 호안석축을 설치하고 있다. 다대포진성 해자바닥은 편평하며 목익 등 시설물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다대포진성 고고학적 검토

다대포진성 입지는 좁은 해협이나 만곡한 지형 내부에 위치하고 주변에 크고 작은 도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적이 아군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군 역시 좁은 해협과 만곡된 지형으로 인해 적의 출입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어 주변산에 권설봉수(權設烽燧)가 설치되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대포진성 체성부 축조수법은 기존에 조사된 경상좌수영성지 체성부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대동소이하다.⁴⁵⁾ 다대포진성 축조수법 특징은 경사면에 설치된 체성부 외벽기단부 축조수법이다. 다대포진성 체성부 외벽 기단 축조수법은 경사면에 수평화공법을 사용하여 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영조 때 수축되는 후기 동래읍성 경사면 축조수법, 경상좌수영성지 체성부 축조수법과도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대석 설치유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다대포진성 체성부는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성석을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로 교대로 실시하여 축조된다. 반면에 후기동래읍성 산지면 체성부, 경상좌수영성 발굴구역에서는 지대석의 설치 없이 기

단석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다대포진성 해자에서도 지대석의 설치 없이 기단석만 설치하고 그 위에 호안석을 축조하고 있는 구간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조선 전기보다는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다대진성 체성부 내벽 노출상태

다대포진성 체성부 내벽은 정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2001년 다대진성 내 신축건물지에 대한 입회조사

4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경상좌수영성지』, 2001.

(부산시립박물관)에서 확인된 내벽적심부에서 계단식석축에 흙을 경사지게 덮어서 마무리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6년 조사(국보학술문화연구원)에서 장대석을 이용 입수적인 외벽면석 등과 그 뒤에 일정 크기의 침석 등을 이용하여 체성부 적심을 축조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축조양상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법과 대동소이하고, 다대포진성의 양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도 그 축조수법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북벽 체성부 구간 중 수축 흔적을 확인 할 수는 있는 구간도 있어 전체적으로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한 후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개축시에 부분적인 축조수법의 변화가 파악되나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외벽축조수법에 있어 같은 지역인 동래읍성에서는 치석된 가공석을 사용하고 그랭이공법에 의해 석재간의 틈을 없애거나 줄이고, 그를 통해 마찰면이 넓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다대포진성에는 이러한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기동래읍성 및 통영성 등에서 확인되는 장방형 및 방형 성석으로 치석하고 그랭이공법에 의해 석재간의 간격을 없애고 마찰면을 넓게 만드는 방식의 조선후기수법은 다대포진성 체성부 축조수법에서는 일단 채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거진인 다대포진성에서 임진왜란 이후 축성 및 수개축되는 후기 동래읍성, 통영성, 한양도성, 수원화성, 남한산성, 강화도 돈대 등에서 확인되는 기단석을 입수적하지 않고 성석 크기를 줄이고 치석한 방형, 장방형석으로 넓혀쌓기를 실시하는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다소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조선전후기에 걸쳐 부산지역의 가장 중요한 군사거점이며 대일본 최일선 방어시설인 다대포진성에서 16세기 이후 새롭게 도입된 체성부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군사방어전략 변화이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도성방어체계에 속한 산성 및 왕실보장처에 대한 성곽축조가 치중되는데다 지방에서도 거점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부산지역은 동래읍성과 그 배후에 위치하는 금정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체계가 이루어진 관계로 이를 중심으로 한 성곽 수축 내지 혹은 증개축 이루어졌다. 이때 후기 동래읍성과 금정산성에서는 17세기의 성곽축성술이 일부 확인된다. 두 번째로 다대포진성의 입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대포진성은 부산지역 대표적인 영진보성으로 16세기 이전까지 낙동강하구의 끝에 위치하며 낙동강과 가덕협수로를 통하여 남해안과 경상도의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던 왜세력을 차단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은 후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의 수륙병진전술에 의해 배를 이용해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로 빠져 나오는 전술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선상수어와 중요 수로 길목을 지키는 것에 있음에 착안하여 그 중요지점에 해당하는 가덕진성, 통영성 등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해남 우수영성을 수개축하였다. 반면에 다대포진성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선의 숫자를 늘리도록 하는 등의 논의⁴⁶⁾가 이루어졌음에도 인접한 왜관과 일본에서 도착하는 최초 해안도박처임을 감안하여 기존 성곽에 더하여 수축만 할 뿐 당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성곽축조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성곽축성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임진왜란 이전에 다대포진성 역할이 인접한 가덕진성으로 상당부분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변진이력지구로 지정되고 당상관급 첨사진이며 경상좌수영 관할 최고 거진임에도 불구하고 체성부 축조는 조선 전후기를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대포진성 조사현황에서 확인되는 부대시설을 검토한다.

46) 『영조실록』 권72, 영조 26년 11월 23일 임술.

먼저 성문을 살펴보면, 정문인 남문은 과거 지적원도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주변지역 매립으로 인해 해안에서 이격되었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는 바닷가 모래사장과의 인접하여 성문 가까이에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것은『해사록(海槎錄)』에 수록된 다대포진성 묘사에서 모래사장에 가까우며 저녁 밀물이 수루에 맞닿는다는 구절이 있어 남문 인근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⁴⁷⁾ 특히 이때 “戍樓”는 적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 혹은 누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누각 시설 등은 치성 위에 설치되는 것이 많다. 또한 성문에 인접해서 적대에 설치되는 것을 참고한다면 다대포진성 남벽 체성부에는 치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대포진성 해자는 『조선왕조실록』선조 26년조에 기사 내용 가운데 경상도 부산·동래·밀양·김해·다대포(多大浦)·창원·함안 등지 성을 증축하고 참호도 깊이 팠다.⁴⁸⁾ 라는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때 다대포진성이 증축되고 해자가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다대포진성 해자가 1592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이때 당시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해자를 수개축하고 있음을 볼 때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는 임진왜

47) 『海槎錄』다대포(多大浦)에서 비오는 중에 -신유(申濡)

옛 성이 모래 언덕에 가까우니 / 古壘近沙岸
 저녁 밀물이 수루에 맞닿구나 / 暮潮連戍樓
 새들은 연기가 나무에 깃들였고 / 鳥棲煙際樹
 사람은 비오는 배 안에 누워 있네 / 人臥雨中舟
 물 나라엔 단풍 숲이 컴컴하고 / 水國楓林暗
 산 밭엔 밀 이삭이 익었네 / 山田麥穗秋
 동으로 만 리밖에 가는 길인데 / 東行萬里外
 예서 오래 묵자니 이 시름 어이하리 / 愁絕此淹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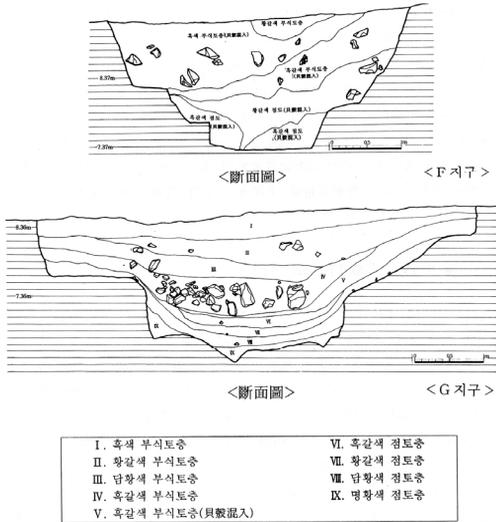
48)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 윤11월 14일 갑오, “...又以慶尙道前受敵之地 增築釜山東萊 密陽 金海 多大浦 昌原 咸安等城 鑿深壕塹.”

란 직후 왜군에 의해 진성이 함락 훼손되면서 파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성곽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개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다대포진성 해자와 유사한 것은 울산 경상좌병영성 동벽 해자(2016년 발굴조사)로 폭 5m, 내외호안석

축간 폭 3.5m, 깊이는 내벽 13~125cm, 외벽 17~87cm로 단면 모양은 U자형이며, 견호(隍)이다.⁴⁹⁾ 이 해자의 내외호안석축 간격과 굴착폭 그리고 물을 채우지 않은 견호인 점이 모두 다대포진성 북벽 해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서생포진성 해자는 체성부에서 약 13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다. 다대포진성 해자가 북벽 체성부에서 10m 이격된 것과 비교할 때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생포진성 해자는 잔존 최대 5-6단, 최대 높이는 약 120cm, 폭 약 50cm이다. 2차 해자의 폭은 최대 3.7m 정도이며 높이는 2.5-3m 정도로 추정된다.⁵⁰⁾ 다대포진성 해자는 폭 5.2m로 서생포진성 해자 폭보다는 넓게 확인된다. 그러나 해자 내외호안석축 폭이 3.3~3.7m 정도임을



<그림 5> 황(隍) 토층단면도(소을비포진성)

49)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울산 병영성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2016.

50) 지윤미, 『서생포만호진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 『울주의 성곽』((재)한겨레문화재단 구원 개원 5주년 기념학술대회), 2014.

고려하면 동일한 폭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여수석보에서 확인된 해자는 서벽 체성부 외벽 기준으로 5.3-5.5m의 거리를 두고 4.7-5m 폭으로 축조하였다. 해자 내, 외면에 20-90cm 크기의 활석으로 호안석축을 축조하였으며, 내벽은 60-100cm, 외벽은 80-90cm 높이이다. 이러한 여수석보는 영진보 가운데 가장 하위 제대 성곽에 해당하는 것임을 상기하면 전체적으로 거진인 다대포진성에 비해서 체성부와 해자간 이격거리는 반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자 폭은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최근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와 해자 이격거리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합포성 10m~20m, 경상좌병영성 10m, 다대포진성 10m, 소울비포진성 10m, 서생포진성 13m, 개운포진성 7~15m, 여수석보성 5.3~5.5m 등으로서 대략 10m 내외가 많다. 그 거리가 대략 5,6~20m로 확인되고 있는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는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은 성종조에 일률적으로 성기심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시에 성곽이 축조되면서 동일한 이격거리를 가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된 영진보성 해자 폭은 대체적으로 2m~8m사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가운데서 최근 조사된 서생포진성, 울산좌병영성 등이 다대포진성의 해자 폭과 특히 동일한 양상이다. 이것으로 단언할 수 없지만 경상좌수영 관할 영진보성 해자는 규모로 볼 때 대체로 동일한 규격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 해자는 단면 U자형 외에도 V자형으로의 굴착들도 다소 확인되고 있다. 그 유형에 있어서도 물을 채운 해자 보다는 건조인 황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다대포진성 역시 해자 단면은 U자형으로 물을 채우지 않은 건조인 황에 해당한다.

대부분 영진보성은 그 입지조건 자체가 성 정면이 반드시 바다와 접하거나 바다와 내륙하천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히 해자를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영진보성에는 해자가 구비되어 있다. 더구나 해자 설치 지점에 있어서도 특히 육지로 연결되는 구릉사면에는 거의 해자를 설치한다. 다대포진성 해자 역시 북벽 체성부 정면을 비롯한 동, 서, 남, 북벽 사방에 해자가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어 진성의 방어력을 보완하고 있다.⁵¹⁾

다대포진성 해자 호안석축은 체성부에 비해서는 조잡하게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기저부 바닥에 지대석을 놓고 뒤로 물려서 기단석과 해자석을 축조하는 연해읍성에 비해서 다대포진성 해자 호안석축 기단부는 지대석이 없이 기반암을 정지하고 그 위에 바로 축조한 것에 기인한다. 대체로 영진보성 해자 축조시 기반암을 굴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특별히 석축 및 토축을 이용하여 양안벽을 구축하지는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해읍성 해자석으로 사용된 석재들은 대부분 자연할석이나 화강암계통의 자연산석이 대부분이며 강돌과 면석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데 다대포진성 해자호안석축도 대동소이하다.

최근 조사된 연해읍성 해자에서는 木杙이 기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다대포진성을 비롯한 영진보성 해자에서는 木杙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일부분에 한정된 조사결과에 의한 것에 기인하는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에 조사된 영진보성 가운데 개운포성을 제외한 해자에서는 木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이다. 더구나 부산지역내의 동래읍성과 인접한 진해 웅천읍성의 해자 내에서도 다량의 木杙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상 군사성인 영진보성의 방어력을 높여 줄 해자 내부에 木杙이 설

51) 이일갑, 『南海岸 沿海邑城의 核字考』, 『문물연구』 10, 2006, 82~83쪽.

치되지 않는 것은 좀더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것은 해자의 설치위치에 따라 급경사지역에는 물을 담수할 수 없기에 견호인 황을 설치하고 평지에는 방어적인 면을 고려하여 물을 담수하고 그 안에 木柵을 설치하여 방어력을 강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해자는 연해읍성의 해자 보다는 방어적인 면에 있어 부실함을 엿볼 수 있다.⁵²⁾

IV. 맺음말

지금까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다대포진성에 관하여 살펴본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대포진성은 부산지역에 설치 축조된 관방성으로 조선시대 국방상 중요 거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변진이력지구로 지정되어 당상관 이상의 첩사가 임명되어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남해안지역 대왜 구 방어 전초기지 가운데 가장 선두에 위치한 중요한 곳이었다. 다대포진은 조선시대 영진보의 잣은 이동과 설패가 이루어진 가운데서도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처음 설치 및 진성 축조가 이루어진 지금의 다대동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 이전 설치가 이루어지는 장습포와 서평포가 동일한 지역임을 이번 연구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대포진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왜구의 서진과 낙동강을 이용한 내륙침입에 대비코저 현재의 위치에 설치 운영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적로(일본)의 최일선임을 인식하여 여타의 진들과 달리 이설되거나 폐지되지 않았고 바로 복구되어 조선후기 까지 조선 전기기능에 더하여 대규모 침입에 대한 선상수어 기능을 더

52) 이일갑, 앞의 논문, 2006, 83쪽.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대포진성은 적이 아군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잇점이 있는 반면, 적의 출입을 쉽게 파악하기 힘든 지형조건을 갖춘 위치에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배후산에 권설봉수(權設烽燧)인 다대봉수를 설치하여 이와 연계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고고학적 현황조사 결과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평면 말각방형 내지 타원형이 아닌 주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형이 조선 전기 특정시기에만 유행한 성곽 평면형태임을 감안하면 성종조에 축조된 다대포진성은 거의 주형 마지막 단계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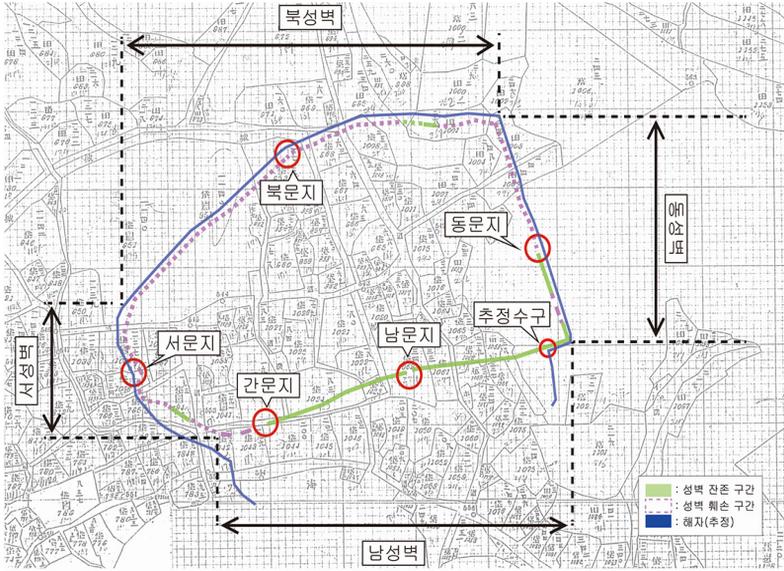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된 다대포진성의 규모는 둘레 1806척의 포백척 환산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대포진성 축조는 처음 성기심정시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성둘레 역시 최초 성기심정시보다 약 600척 가량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둘레 1,806척은 침사진성으로 승급되었음에도 초기 축조 당시 만호영의 성둘레를 유지하며 장습포 및 서평포로 이설과 합병, 다시 현재 위치로 이전, 이후 임진왜란을 거친 조선 후기까지도 증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첩절제사진성 및 절도사영성의 최소 성둘레인 2000척 이상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변진이력지구로 지정되어 당상관급 무관이 진장인 다대포진성의 위상과 중요성에 비하여 성둘레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대포진성 체성부 축조 특징은 체성부 외벽축조수법과 내벽축조수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성부 외벽 축조수법은 성석을 장방형 및 방형으로 치석하고 그랭이공법에 의해 석재간의 간격을 없애고 마찰면을 넓게 만드는 식의 17세기 수법은 일단 채용되지 않고 있다. 다대포진성 체성부 내벽은 계단식석축에 흙을 경사지게 덮어서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한 후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 후기

까지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살펴볼 때 16세기 이후 새롭게 도입된 성곽 축조수법이 다대포진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군사방어전략의 변화, 두 번째로 다대포진성의 입지, 세번째는 가덕진성으로의 역할 이전 때문이다.

고지도 및 문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치성, 해자 등 부대시설이 확인되었다. 치성은 다대포진성의 남벽 체성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해자는 초축 당시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수개축하고 있어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는 임란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지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체성부를 제외한 군사시설에 대한 지도 묘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부대시설을 지도에서 생략하는 것은 역시 군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함에 기초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은 고고학적 조사 내용 일부로 파악된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설치 및 축조된 다대포진 및 진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시대 부산지역 관방 체계와 성곽축조 및 운용, 군사전략, 수군의 활동, 대일관계 연구 등을 위해서도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밝힌 내용들이 향후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의 진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다대포진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한 가설은 차후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며 맺음말에 대신한다.



<그림 6> 대정2년(1913년)지적원도



<그림 7> 1977년 촬영 다대포진성 잔존 체성부 전경



<그림 8> 1977년 촬영 다대포진성 잔존 건물지 전경



<그림 9> 북벽 잔존 체성부



<그림 10> 북벽 잔존 체성부 세부



<그림 11> 해자 전경



<그림 12> 해자 내 토층상태



<그림 13> 해자 전경-외측



<사진 14> 해자 전경-외측 입면

| 참고문헌 |

1. 사료

『萬機要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嶺南鎮誌』, 『朝鮮王朝實錄』, 『朝野僉載』, 『春坂堂明錄』, 『海東繹史』

2.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거제 옥포진성』, 조사연구보고서 제36책, 2005.
 경남발전연구원, 『마산 합포성지』, 조사연구보고서 제49책, 2006.
 경남발전연구원, 『통영읍성』, 조사연구보고서 제107책, 2013.
 국립부여박물관, 『서천 장암진성』, 199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전라좌수영편),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전라좌수영편),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I』(경상우수영편), 2016.
 국보학술문화연구원, 『부산 다대진성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2016.
 동아대학교박물관, 『蔚山倭城-兵營城地』, 1986.
 동아대학교박물관,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查報告書』, 1991.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市 城址 調查報告書』, 1995.
 동아대학교박물관, 『巨濟長木觀光團地造成地域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1997.
 동아대학교박물관, 『舊所乙非浦城址地表調查報告書』, 1999.
 목포대학교박물관, 『무안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장흥군의 문화유적』, 1989.
 목포대학교박물관, 『강진 병영성 발굴조사보고서』, 1991.
 목포대학교박물관, 『완도군의 문화유적』, 199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진성 복원을 위한 흔적 찾기 기초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201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경상좌수영성지』, 200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다대포성지 내 건물 신축에 따른 정밀지표조사』, 2001.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경상좌수영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0.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울산 병영성 월성개나
 리아파트~동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2016.
 통영시, 『당포성 지표조사보고서』, 1997.
 한국문화연구원,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결과보고
 서』, 2006.

3. 저서 및 논문

나동욱,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 『박물관 연구논집』 2, 1993.
 나동욱·성현주, 「금단곶보성지 발굴조사 개요」, 『박물관연구논집』 6, 1997.
 송해영·서치상, 「다대포진 관아의 공간구성과 해체과정 연구」, 『대학건축학회는
 문집(계획계)』 31-10, 2015.
 민덕식, 「조선시대의 목책」, 『충북사학』 11-12, 충북대학교사학회, 1988.
 심봉근, 「거제 오양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1994.
 _____, 「한국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33, 국방군사연구소, 1996.
 이일갑,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_____, 「南海岸 沿海邑城의 垓字考」, 『문물연구』 10, 2006.
 _____, 「경남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보』 45, 2008.
 _____,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 13, 2008.
 丁仲煥·沈奉謹, 「창원군내 성지조사보고」, 『석당논총』 1, 1976.
 지윤미, 「서생포만호진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 『울주의 성곽』((재)한겨레문화재
 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학술대회), 2014.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최몽룡, 「고흥발포진성 발굴조사보고서」, 『백산학보』 29, 1984.

투고일 : 2017.6.14. 심사완료일 : 2017.7.4. 게재확정일 : 2017.8.4.

| Abstract |

A Study on Dadaejin Fortress in Busan
- Focused on Its Structure and the Construction Method -

Lee, Il-Gab

According to records, Dadaejin Fortress, a forefront base to defend from the Japanese invaders, was an important stronghold for national defense during the Joseon period. Dadaejin Fortress is 'Yeongjinboseong' whose remaining flat mould stonework circumference. The fortress was 13 cheok high and its circumference was 1,806 cheok. according to a part of 『The Annals of Joseon Kingdom』about the 21st year of Seongjong's reign. Dadaejin Fortress was restored to the original size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mjinweran). These fortresses are advantageous in that the enemy can't easily find our troops but our troops also can't see movements of the enemy easily due to narrow straits and curved geographical features. To supplement such a weak point, early alarm systems were established using Eungbong beacon fire stations as Gwonseol beacon fire stations. During the latter half of Joseon period, small rocks were used and foundation stones were laid down for piling, instead of being laid on, for building a fortress. In Dadaejin Fortress, however, such a building technique wasn't confirmed and construction patterns adopt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were shown. The foundation rocks were roughly leveled and fortresses were built using level stereobates on inclines. In addition, foundation stones were used, foundation stone were put behind the outer walls of the fortress body and fills were laid. These techniques show that methods us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for building the

fortress body were continuously adopt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A record in 『The Annals of Joseon Kingdom』 about the 26th year of Seonjo's reign shows that Dadaejin Fortress had moats, meaning that Dadaepojinseong was extended and moats were being built at that time. The moat of Dadaepojinseong is about 10m off the north wall body. Shore-protecting stonework was built inside and outside of the moat at intervals of 3.3~3.7m after digging natural earth of about 5.2m wide. The U-shaped moat section of Dadaejin Fortress is a 'Hwang,' a dry lake without water. Stakes were not found in the Dadaejin Fortress moat, showing that the fortress was weaker than coastal fortresses in terms of defense.

Key words: Dadaejin Fortress, Gwonseol beacon fire station, fortress body, moat, shore-protecting stonework.